

新傳煮硝方全

新
77
1





新傳煑硝方

取土

路上或墻根前晝曝陽夜潮氣色黑味鹹者
最佳或涼或苦或甜或酸者次之唯鹹者生
濕故不好

視其地而嘗其味則白者味淡而黑者味
厚以曲錘薄刮取其黑紋而不務深淺
則生土雜而味薄也刮取之後人踏陽曝
又過數日則氣與味湧上紋自生矣依前

取用可以無盡而若遇雨水則待過十數

日陽曝而後又可取用也不見兩者味常厚前式之專用

屋裏土者為其辨之甚易故也

홍모흙이라

갈우히나홍담밋히나나죄벗뵈고밤의괴

은이소사밋치검고맛이타온흙이리장아

름답고흙서늘거나홍쓰거나홍들거나홍

신흙이지타요오직뵈흙은나종의습거나

매도티아나흙나라

사 빛출보아 흙을 맛보면 흰타는 맛이 습
겁고 검은타는 맛이 두텁스니 품은 얕흐
로그 검은거슬 얇게 깊고 김히 말떠니 김
히흐면 싱흙이 싹겨 맛이 얇스니라 깊어
쓰후의 사름도 붉으며 벗도 뵈야 싹두어
날이디 나면 귀운과 맛이 소사올라 김은
빛치스스로 나스니 전태로 깊어 쓰면 가
히진티아나흐려나와만 일비를 맛나면
열나쁜날이나익고 벗출뵈야 디번후의

야소 가히 굵어 브리 나라 흠을 맛디 아니
베스 두터 오너 전법의 짐안히 흠을 연
쥬하여 빚은 그 알 어 버기 쉬 옴 이 러 라

取灰

蓬蒿灰

俗名福穀稽灰

禾黍稷粟之藁
豆箕糖幹之類

最佳雜

草雜木灰次之松灰不用

熬水必用可灰之柴則灰自其中出此一
物而兩得也

지 밧음이라

다복지와 곡식 데 지 쪼기 장 쥬 쥬 조 딴 히 며 콩

마장아름답고 뜻나모지지
초요소나모지
느쁘다 못하느니라

물을 달히기를 반드시지
내여 알남그로 흘
떠나 이느훈가지게
스로 두벌어듬이나
라

交合

土四斗 灰四斗 勻勻和拌
拈出沙石 土若黃
粘加灰半斗 土若雜沙
減灰半斗

此以唐斗言 一斗容本國二斗半 四斗乃

本國十斗也灰與土參半使之相濟然後
所得多而其品猛故累試已驗不可輕易
加減也

교합흙이라

흙너말과지너말을고로로뒤져겨섯거잡
흙돌덩이를주어버되흙이만일누로고출
지거든지반말을더하고흙이만일모래석
것거든지반말을덜라

이노당말로베를음이니그호말의본국

두말가 옷이 드너 너말이 본국 열말이니
라지와 흙을 바로 반식하야서 큰 제케흐
후의야 잇는배만 코그똥이 링털하느니
여러번 시험하야 임의나 타나시너가히
경이히더흐며더더못할꺼시니라

水 篩水

用一大甕傍底穿一小穴作流道以竹爲筥
下置陶盆以承其水而甕內先撐井字木次
鋪兩番葛稽簾即糖榦也如無糖榦盛拌土

一半於其上慢慢打築甕內四邊而當中則

否

恐水不

又盛

一半亦依前打築而後着上

淨水

張流水或井水而湯用則尤

待其滲盡再着水如是

者累得水盈兩鍋而止

前排木槽用之便好而若值倉卒則不如

陶甕之易辦也鍋容四桶水先受一鍋為

正水次受一鍋為末水明日之役用末水

篩土則味益厚矣且自篩水以至再煉三

煉不可用濁水為其生角生鹽而硝之氣

力亦短故也

角者狀如碎石膏或四稜或不

鹽者或如海鹽而性麁味惡譬若粟之有秕者也

물바름이라

큰독 하나 흘렀다 히로 넘히 굵글 빨고 머로

흙을 린들 아박아 물흐를 길 흘리고 그릇을

흙사히 노하 그물을 밧게 하고 독안히 우물

정조로 남글 벗되 온 후의 우희며 발두 번을

엇설고 버므린 흙을 반만 시러 년 죽년 죽고

을 둘러 다오 되가 온 뒤는 말고 들어 이 시야 나

라이도 남은 반을 마자 담아 전쳐로 다은 후의
조흔물을 더양기슈후우를이 더여쓰면 더옥도흐너라 독시옥
사지 부어 물이 다 숨 웃 거 든 년 호여 물을 두
어 두가 마의 차게 밧고 굿치라

전 비 목 조 | 쓰 기 현 코 쇼 호 되 만 일 창 줄
에 호려 호면 질 독 만 치 수 이 엇 디 못 호 리
라 가 마 는 호 나 희 를 배 통 식 드 너 몬 저 밧
은 호 가 마 | 정 물을 이 되 고 지 차 밧 은 호 가
마 | 만 물을 이 되 는 나 잇 뜰 날 역 스 의 만 물을

로버흐을빳트면맛이더욱두텁느니라
 또를빳기로부터지련삼렘써지느니라
 가히흐린물을쓰지아니흐려시느니라
 즈나며소곰이나고염초괴력이또흐
 더름을위함이니라과조란거슨변아
 모나며혹다였모나되불의더흐면톡톡
 비고붓다아나흐며소곰아란거슨후바
 다소곰조흐되발이쿨고맛이사오나오
 너비컨머꼭석의기음쳐로해로운거시
 라너

熬水

將正水一鍋必以蓬蒿穀稭或雜柴緊燒火

大沸一會徐以慢火

即文武火

熬至半鍋移盛他

器穢滓盡沈然後刷洗本鍋而倒其他器澄

清者於鍋中再滾一二會試取一椀照寒水

待其儘冷倒其刺水看硝成不成若未儘好

則更煎一霎依前照冷必須好成然後即止

火差待熱息分盛瓦盆置之靜處經宿而倒

水則狀如蜩毛此謂毛硝也

水味極驟然後煎至半乃成而

水味或淡則雖煎之過半未可必成也然而止火之際必須著力審看若煎之過而水老

則硝不得成須以刺
水一梳添沃乍沸

此只以一鍋之役言之也大抵土灰並二
十斗取水四桶用柴二同得毛硝六七斤
若用二百斗土灰四十桶水二十同柴則
得硝六七十斤前式則以土二百四十斗
取水八十八桶用吐木幾一迭而得硝二
十餘斤一迭吐木比之二十同柴其價已
倍而得硝又不能三分之一至於硝品精
劣不可同年而語也夫硝者生於土而灰

又發其精制其穢以振其烈者也五味皆
取獨不及鹹者爲其可於鹽不利於硝也
而前式則唯鹹之爲貴得硝之少以此也
以灰半之爲其互相生濟也而前式則獨
土之是用硝品之劣又以此也以柴火文
武燒而前以吐木猛沸無節且十斗之水
不過二桶而前受四桶之多水旣多而味
益薄矣譬之炊爨稠者易熟稀者費火理
勢則然宜乎其用力多而得硝少也

물달힘이라

저물을흐가마를다가저너여빨남그로긴히
불을씻어흐지위미이슬힌후의저기누겨
만화로불이너모쓰도아너코녀고아반가
마나되거든다로그릇시옴거안초면더러
온지가다쳐디고물이몹아디느니본가마
를러싣고그몹힌물을정히돌와다시두어
지위달힌후의시험하여흐그릇시조끔써
츄물의치와염초발이셔며아니섬을보아

만알의 굿도 티아너 커든 다시 흐소숨만달
허또치와보아반드시 잘된후의 불을 굿치
고잠간더 온김이 식거든 존옹과 예논화벼
안정흐곳에 노화밤잔후의 옷물을 들오면
형상이 고숨듯 희털또너니 이거시 널은모
쇼너라 물맛이 크히미 온후의 야반만달
면비록반이디나도 되기를 형터 못흐너니
라그러흐나 불긱철즈 음에 반드시 착심흐
야슬밀며 너디 버달 허클이 허어도 되디 못
흐너너 모로 미영슈 흐사 발을 부어 녹이 고
잠안 달
이러

이거슨다만흐가마만고오니역스물드
옴이라며저혹파지아오로스므말에을
비통을밧고뜻나모두동을드려모초여
닐꿈근을어드니만일혹파지합이빅말
과를마은통에스므동남클셋이면염초
뉴칠십근을엇거놀전범은이빅마은말
혹이이로를여든여둑통을밧아토무거위
흐저래를밧어쉬염초스므나문근을어
드니흐저래토목이스므동남게비키며

갑시임의비하고엿는염쇼이쇼삼분지
일이못되고품의정함며널히기의닐으
러도쇼가히흔히예닐으디못하리라원
간염쇼이란거시흠으로나되지쇼경귀
를베플고그더러온거슬제어하여베그
밍널키를별티논거시라온갓맛잇는닐
을다쓰되홀로쁘거스구티아니흠은그
쇼꿈의가하고염쇼의니티아니흠을위
흠이오쇼전변은오직쁘함안귀히너기

니엄쇼를적게어듬이일로배요시로배
반식섯금은구서로도아백라범을인홍
이어놀전범은홍로홍만쓰니엄쇼품이
별음어쇼일로배요뜻나므블로배만화
로달하거놀전의논토묵으로배잉히살
히기쿨절츠업시홍고쇼열말의맛노를
이두통의지나다아니커놀전의논비통
도록안하맛으니물의임의만하매맛이
도우우음은다라비컨머밤을지매도면

나기입고물이면 남글허바흐는 나니세
곳그러흐니 전법의 공복만안히 들고염
초는 적기어 들씨 맛당흐도다

再煉

將毛硝放在鍋內鋪平著上淨水硝上水高
限以二指暫滾一會待硝盡化點膠水少許
而又滾一會則鹹而生濕之氣穢而害烈之
物皆上浮作泡用鬃勺撈其泡子再著膠水
而更沸盡撈其泡如是三四次而後取一勺

傾倒則垂凝如蝶翅牙尖然後盡盛磁盆噴

一二口冷水

欲其不作將被

以厚襦襖封其盆口用

細繩縛之放在陰涼屋裡不使風陽照觸待

儘冷解其封去其剩水則狀如雷冰玉义其

色光瑩可愛此謂精硝也

不待垂凝如牙徑先止火則氣力短

劣又或過滾不止則為鹽為角變在瞬息最宜詳審

前式再煉之水甚濁只取其清其下滓穢

盡棄不用故毛硝若百斤則僅得煉硝三

十餘斤此則煉水澄清傾鍋而用故硝至

七八十斤而其品光瑩其性剛猛積置地
窖十年經靈絕無傷濕之患皆灰與膠之
功也

지련흙이라

모초를가져가마안히담아평히고론후의
조흔물을부으되염초우희물을두손가락
누인높희만치호호고잠안호호지위슬허연
초다다누거든아교물을조곰퓌이교도호
소소슬하면싸셔추음을베느저운과터러

위민영년기롤해호느티가다소사을라거품
이되느니총자로버그거품을건디고다시
아교물을면이며소살혀그거품을다건디
도이리호기롤서너번호후의늦자로써서
기우리면드리위일위기롤나비논개와상
아침즈느니그러호후의가마롤극어퍼
셔사론즈의담고두어먹음성슈롤뵈고
에너불처로되너
야나케호이라 듯터온햇보호로써그
즈부리롤보호고마노노호호로리야그늘지

고서늘흔집의두어변람과벗출뵈지아너
 케흐야익긱차기룰기드려그받기슬풀고
 잉슈를돌오면형상이긱어름과옥빈혀스
 흥여그빛치빛나고조하가히어옛브느너
 이거시닐온정쇼 | 너라 드려위얼위미아
 첨저기룰기드려
 디아너 고즐러문겨블을긱치면염쇼거
 력이터르며널흥고쏘혹너모슬혀긱치디
 아너 흥면소곰되며각조되기변흙이슬식
 간익잇느너 장맛당히저시슬필며너라
 전법은지련흥물이심히흥리매안초와
 그법은거슬즐러퍼쓰고밋히쳐디느지

는다브리는고로모쇼니만일빙근이면
게우련쇼설흔나문근을엇더너이느련
흔물이몹아시매가마를홀터브는고로
련쇼니닐여든근에닐이고그품이빛나
고조흐며그성이강하고모지러움속의
두어십년당마를적거도상하야속는환
은곳처업스니이거시다저와야교의공
이나라

三煉

再煉後如未臻十分好頭則三煉亦可其法
一如再煉而再煉精則不必三煉

初熬及再煉三煉所倒剝水一點不棄以
補後用可也初設之日則以無此水故所
得必少一自翌日初熬洗鍋倒清之際以
此水約三分之一棄添而煎之使之主客
相助則所得漸滋而功力且省

삼련흡음이라

지려니후후의만일마차드후후품에이르디못

하거든세번려려흙이신평호가하노구법을지
려하더시하려너와지려이정응면구하어
삼려타아노홀새시니라

처음말히며맛지려과삼려의동운잉슈
를하렘도브리디말아베후순의보태여
봄이가하노처음베폰날은이물이포스
고도엇기백반드시적노이름날브리
란처음말하너여안초와물히고본가마
시서고터말하네지음에이물을삼분지일

만짐작하, 여빠서달허하, 여곰주릭이서
르, 돕게하, 면엇느배점점분고공녁이서
털리느니라

세草

七月望後至霜降前則百卉俱肥在灰必辣
而又是農隙故取之甚便也

穀稽末易多得蓬蒿及其他軟棘強草任
意刈取可也所謂熬水必用雜柴云者非
但爲灰也文武火候准柴易調故也松之

不合於煮硝既如是刈草與斫松其勞逸
難易又相懸絕而不知此妙以爲必須吐
木狀後乃可施措郡縣無松處則不得生
意真可歎也

나모비미라

칠월보로후로서리아니온전사지느온갓
풀이다슬디매지민드라반드시립고또이
배농극인고로취흙이심히편호노라

곡식머느안히엇기쉽디아나호니다복

파밋그남은연호나모센풀을임의로비
여밤이가호나라닐은밤을달히기롤반
드시푸트남그로호라흠은호갓지네여브
기만위호를썩이아나라만화로밋기롤오
직푸트남기야호기쉬온연피나소남기열
초급기의맛스다아나흠이이미이러로
호고풀벼벼솔벼히기그잇브며편키와
어려오며쉬오미쑥서로되도호기놀이
런묘호의줄을아디못호고베호되반드시

토목으로야가히호리라호야군현이솔
업슨곳이면시러곰싱의톨못호니진실
로가히탄호리로다

膠水

阿膠三錢淨水一升同煎以化爲度用於再
煉而若膠重水粘則硝色黃濁不好

古賦曰阿膠不能止黃河之濁又曰大河
之混恃寸膠不能以止殊不知其意義今
以此驗之蓋膠是激濁揚清之物也煉時

點膠之污穢者上浮作泡點之多而水益
清澈此自狀之妙也夫硝最厭穢濁故始
終不得用一勻混水初熬必須掠去浮沫
再煉又點膠水盡撈其穢狀後硝乃明好
狀而點膠又不可過多爲其滓盡去而精
反消弱也

아교물이라

아교서돈과조흔물호되를호가지로달혀
다누기로빠도를삼아찌련의브되만일아

교ㅣ짓터물이출디면염쵸빚치누로교흐
리여도티아니흐나라

넷글에닐러쇼디아교ㅣ라도능히황하
의탁흐거슨긋치디못흐다흐여시며또
닐오디대하의흐린거슨흐디아교를
밋어능히배긋치디못흐다흐니즈못그
빚을아디못흐더니이지일로배험흐니
대개아교논이흐린거슬즈아몹기를붓
내근거시라련흔배예교슈를덕이먼더

러온거시소사올라거품이되야점점덕
이도록물이다옥맑느니이느조연흐묘
리라염초이란거시장더러온거슬슬
희여흐느고로처음브터나종사지시러
곰흐자흐린물을쓰디못흐고처음달힐
지반드시모로미스른거품을건져버리며
지련의또교슈를덕여그더러온거슬다
권진후의야염초이에맑고요커니와
그러나교슈덕이기를또가히너모만히

못흔꺼시니그지카다업스매정괴도로
허슬어저약흙을위헌여니라

合製

精硝一斤柳灰三兩硫黃一兩四錢而六七
月則加黃一錢

右爲細末篩下各稱同盛一器入些淘米
水之清者拌調甚勻另加碓搗始於天明
到晚方止越搗越好碓搗時必有潮氣乃
好若無潮氣灑些那水頻頻翻過無令乾

燥也

화약합제라

정요호근에유회석양과유황호양디돈을
호디유칠월이어든유황호돈을더티하라
우를작말호야나늘게처각각분수대로
돌아호그릇시담고쓸시손목은소물로
반묘클심이고로게호야디지름미이아
되호북으며시작호야나죄긋치나디
옥디토록더옥묘호나라디홀적의추어

기운이이셔야도흐니만일더허축은그
운이업거든물을셔기뿌리며조로격겨
뒤어흐여곰모르디아니케하라

得硝法始末

我國初不解煮硝之術就買於中國而
常患不繼崇禎年間關西人成根者得
之流漢試煮於武庫而刊布其方完豐
李府院纂輯完城崔相國跋尾者是也
後有韓世龍者學於倭人比諸成根用

新傳考所方
力少而所獲多遂棄根而用世龍之法
傳之至今狀其品不甚精煉故

國家嘗慨狀於斯云逮至壬申判書閔公
就道以節使副价赴燕指南以譯隨行
閔公路謂指南曰煮硝一方自

祖宗朝欲得其妙而終不能致之爾若求得
幸莫大也指南於是購求其方靡不用
極而無處可覓歸抵遼陽潛叩村舍得
一人焉遺之金而問之始得其術而一

夜忽卒未能盡傳聞公歸奏

筵席別遣指南於癸酉歲使之行使盡其詳而彼中令嚴法重故人亦畏而秘之前後訪問之際幾死者數矣狀而盡心得間反覆質正一再往來盡傳其法歸而試於私隨手卽成真妙方也將欲用之於公以廣其傳而閔公北遷其事遂寢抱玉而不敢自銜或恐泯沒無傳終使

我

國家不得有殪賊之神用時則相國南公
九萬提調武庫事間而善之召使任之
兩歲之間成效顯著今自武庫以至內
而諸軍門外而兵水營山之郡野之邑
此法無處不可用則其利之博可勝道
哉不但如是也前日所藏之藥天陰則
濕遇靈則消必費添新再搗之力狀後
始爲用矣今茲新煉之硝性燥力猛雖
置之地害而十年經霖絕無潤濕之患

此其可尚者也而况當此生齒益繁山木盡童之時代以一年之草一利也取土於通衢大道之上更不侵及人家二利也藝柴而用其灰又省土之三分之一三利也及夫行軍臨敵之際一年之草路上之土隨即取用可以不多日成硝是尤便益於戎事者也累百年購募未得之方至今日而大行爲後世無窮之利雖使此身卒然填溝壑其無憾矣

戊寅五月 日通訓大夫前司譯院正

金指南記

戊寅四月二十五日大臣備局堂上

引見入侍時領中樞府事南九萬所

啓我國焰硝煮取之法殊甚麤疎自前每

欲學得中原及倭國至有懸以重賞之

令而不但他國之人秘而不傳我人亦

無誠心必欲學得者以至于今矣前司

譯院正金指南項於入往北京時多費

私貨傳得其法云故臣於上上年冬令
指南監煮軍器寺焰硝則煮硝時用灰
用膠乃是新法燒木取用一年雜草亦
甚便易故功役頗省而得硝幾倍且硝
品之精好亦勝於前而指南以爲渠之
所學猶有未盡其法者請更試一年矣
上年

朝家以裁省不給軍器寺煮硝之價適有
本寺上年

啓下所得東道枯松木用餘一百迭乃以
其枯松買得錢文數百兩給付指南則
以其錢文料理拮据依常年數煮取一
千斤以納又還納其餘錢其費用之減
省可知硝品又益勝於上年且今山林
濯濯吐木益貴諸軍門煮硝漸難至於
外方野邑無吐木處則雖欲煮硝亦不
得爲之矣今此指南新學之法不用吐
木而得硝既精且多可以傳習爲永久

之利不但兩年監董役事之勞而已不
可與各軍門將校等造弓造銃者比以
同之宐有別樣酬勞之道而第此等賞
格例不過加資譯官之以他歧加資者
見塞於本院譯任在渠反有失望之歎
譯官輩在前亦或有東西班實職除授
者而稀濶之典有難輕施或除西北邊
將未曉煮硝之處更試其法使之傳習
如有功效則漸加調用似可敢此仰達

新傳考所文
三二
上曰譯官輩以他事加資反塞其前程非所以酬勞也相當邊將除授事分付兵曹可也又所

啓金指南所學煮硝之法若以文字作爲方文傳示中外則可以廣其學習亦可傳諸永久令指南作爲文字備述其法令軍器寺刊布中外何如

上曰依爲之

丙辰五月十二日大臣備局

稟事堂上入侍時右議政尹箸東所
啓我國煮硝之法本甚疏略所費廣而得
硝少搗以爲藥藥力不猛天陰則濕遇
潦則消必添新再搗而後用之

肅廟戊寅年間故相臣南九萬建白以譯官
金指南北京往來時所傳得煮硝新方
令武庫刊布中外北前法功役甚省而
得硝幾倍硝品燥猛雖置之地窖而十
年經霖絕無潤濕之患土取路上柴薪

薪草而仍用其灰此其爲簡便可尚之
一端也但其京外頒行者遂寢閣而無
繼煮者板本亦毀失不傳良可惜也若
於華城軍器備置之時以此方煮取而
廣儲之則似好仍又申飭頒布則內而
京軍門外而營閫列邑必有隨力煮取
之處其爲效益豈但止於一時省費而
已乎臣從前輩已經煮用者而熟知其
必可行慨恨於此法之寢而不用今因

月課事言端敢此仰達

上曰

肅廟朝印頒煮硝方寶爲永久遵行之金石
成憲予亦奉置此冊于几上卿言適又
若此政合予意大抵我國人昧於煮硝
之法買來於中國如弓角一自完豐府
院君諸人編書纂方關西人成根覓納
煮法之後雖始略知其制而品猶不精
至副使閱就道使譯官金指南購求於

燕肆歷累歲累送而又至故相南九萬
提舉武庫而功效大著一以用一年草
而山木不濯一以取土於大路而人家
不侵一以燕柴用其灰而又省土之三
分一以是昔年大加稱獎別有賞典於
指南卿之此奏卽修明之一端依卿所
奏出舉條分付俾有實效亦令武庫印
頒可也

新傳煮硝方

終



